


#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테마매칭1팀]브로콜리 편치

1주차	일시	9 월 22 일 23 : 00 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진서 (2051052)	0
		이현준 (2211206)	0
		조현주 (2391057)	0
		황휘성 (1991296)	0
김영아 교수님	0		
진도	도서명: 브로콜리 편치	진도페이지: 1. 빨간 열매 p. ~ 2. 등등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김영아 교수님, 황휘성, 박진서, 이현준, 조현주]</p> <p>이현준: [빨간 열매]: 초반에 주인공이 납골당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면 감정의 요동이 거의 없어서 차갑고 냉소적인 성격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바람대로 유골을 화분과 같이 식물로 키워내고 그렇게 식물이 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하고 요구를 들어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굉장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느꼈다.</p> <p>[등등]: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이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다. 은탁은 죽고 나서도 형규만 생각하고 걱정하는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p> <p>박진서: [빨간 열매]: 초반에 주인공의 태도로 보면 병간호를 오래 해서 아버지가</p>		

지겨워졌고, 모든 것에 무뎠진 상태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유골로 키워낸 식물과 대화하는 게 비현실적이라 처음엔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환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P도 주인공처럼 식물이 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곤 이 작가는 이런 기이하고 허무맹랑한 소재도 아무렇지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등등]: 외계 생명체들이 이타심을 배우고 싶어 하는 생명을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의 기억을 지우고 제한 없는 소원까지 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고등생명체로 비춰지는데, 사실 인간처럼 이타심을 가졌더라면 그만큼 발전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현주: [빨간 열매]: 첫 장에서 유골함을 들고 있는 자신을 도시락을 들고 나들이 가는 사람에 비유하는데, 그 부분이 유쾌하면서도 씁쓸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식물이 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갖은 부탁을 다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주인공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슬픔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상실의 아픔이 잘 느껴졌다.

[등등]: 은택이 다시 살아나기 전 마지막으로 소원을 고민하는 장면에서도 “내가 무엇이 되어야 형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독백을 하는데, 그걸 보고 결국 은택은 또 다시 이타심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은택이 한여름 땀별 아래서 버스킹하는 형규를 보고 얼음컵과 물을 사다 주는 장면을 보면 원래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이타심도 있지만, 선행을 실천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

황휘성: [빨간 열매]: 도입부에선 좀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화자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다. 원래는 서로 모르던 두 가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고. 엔딩에서 주인공과 P가 반으로 나눠 한입에 먹은 ‘빨간 열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의문이 남는다.

[등등]: 쉽게 설명하자면 은택의 덕질 스토리이다.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란 한 소녀가 죽음 후 사후세계가 아닌 외계 생명체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그 외계 생명체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이타심을 가진 사람을 봤다며 은택이 본인들의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뻐한다. 하지만 이 작품을 처음부터 본 나로서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은택의 행동들이 정말 ‘이타심’에 기반한 것일까? ‘진정한 이타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2주차	일시	10월 6일 23 : 00 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진서 (2051052)	0
		이현준 (2211206)	0
		조현주 (2391057)	0
		황휘성 (1991296)	0
진도	도서명: 브로콜리 펀치	진도페이지: 3. 빨간열매 p. ~ 4. 똥똥 p.	
토론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0px; width: 100%;"></div> <p>황휘성 : (브로콜리 펀치) 1, 2 장에서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에 다소 당황했지만 3장 브로콜리 펀치를 읽을 땐 이 작가의 글은 그저 받아들이며 읽어야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몸이 채소로 변해버리는 병이 예전엔 흔했다고 작중에 나오는데, 왜 예전엔 흔했지만 그게 점점 사라지다 원준에게 다시 나타난건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원준의 대처도 정말 침착한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제 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면 기절 먼저 할 것 같습니다.</p> <p>(손톱 그림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5년뒤 현남편과 자고 있는 침대에 나타났다? 이 문장만 보면 굉장히 호러스러운 이야기 같습니다. 현남편의 태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놀라웠고 얼마나 그리움이 깊었으면 죽은 이후에 5년이란 시간동안 잊지 못 해 주인공을 찾아왔을까. 사랑하는, 사랑했던 사람을 완전히 마음 속에서 떠나보내긴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헤어진 연인의 기억을 다 지운것 같다가도 문득 기억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설은 그것을 실체화 시킨것같아 흥미로웠습니다.</p> <p>이현준 : (브로콜리 펀치) 책 제목이 브로콜리 펀치였기 때문에 책을 읽기도 전에 흥미가 생겼다. 이 이야기에서 작가가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나의 괴로운 생각들을 속으로 앓고 있지 말고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인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만약 내가 원준이었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었는데 그 해결법이 매우 간단한 방법이라 놀라기도 했다.</p> <p>(손톱 그림자) 만약 내 앞에 한때 가장 사랑했지만 원치않던 사고로 죽었던 사람이 5년 후에 다시 돌아왔다면 나의 마음은 어떨까? 무덤덤할까? 아니면 혼란</p>		

스러울까?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무덤덤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5년이라는 시간 때문이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묻혀지는 것 같다.


조현주 : (브로콜리 펀치) 원준이 솔직한 감정을 직면하고 풀어내었을 때 브로콜리 손에서 개화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였고 결국 복싱을 관봤을 때 서서히 본래의 손으로 돌아오는 결말을 읽고 원준의 속시원한 마음을 브로콜리로 표현하고 싶은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이 단편을 읽고 전편들과는 또다른 새로운 느낌이 들었지만 매우 엉뚱한 내용에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소설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손톱그림자) 사별한 전 연인인 용준을 그리워하다 마음을 정리하고 석기와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수정과, 현실세계에 나타나 수정이 새로운 삶을 꾸리는 모습을 본 용준, 그 가운데 찢찢할 석기 모두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원망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고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 경험이 있다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몸소 잘 느낄 수 있는 단편이었다.

책의 후반부에 차를 타고 용준이 죽었던 현장에 찾아가는 장면 중, 용준의 장난스러운 말과, 황당해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은 석기의 모습을 보고 결국 이 셋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을 해보았다. 이 단편에서 작가의 의도는 본인의 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다.

박진서: (브로콜리펀치) 소설의 제목이 브로콜리펀치라서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었다. 자연스럽게 손이 브로콜리로 변하고 주인공과 주변인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나도 이전 장들에서 겪은 것처럼 바로 수긍했다. 브로콜리로 손이 변하게 된 증상의 원인은 속에 앓고 있는 감정이나 말들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도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주인공에게 이입하기가 쉬웠고, 힘들거라고 생각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까 궁금했는데, 산에서 소리지르는 걸로 쉽게 해결이 되어서 의외였다.

(손톱그림자) 죽은 용준이 수정의 방에 나타나고 둘이 밥을 먹을 때, 용준은 자신이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냐고 묻는다.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 가끔은 찢질할 때가 있는데 죽어서도 똑같구나라고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장면이다. 수정이 울음을 참기 잘했다고 독백하는 장면에서 진정한 이별은 미련을 갖거나 갖게 해서 안되고 자연스럽게 잊혀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느꼈다. 많은 매체에서는 이별을 할 때, 잊지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손톱그림자에서 다루는 이별은 다른 방식인 것 같아서 흥미로웠다.

3주차	일시	11 월 10 일 23 : 00 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진서 (2051052)	0
		이현준 (2211206)	0
		조현주 (2391057)	0
		황휘성 (1991296)	0
진도	도서명: 브로콜리 펀치	진도페이지: 147 p. ~ 210 p.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이현준, 조현주, 박진서, 황휘성]</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b>박진서: [왜가리 클럽]</b>  주인공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결국 폐업을 하게 된다. 그는 반찬이 팔리지 않는 이유를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손님에게 이유를 물어본다. 그러나 ‘다른 맛있는 게 많아서’ 라는 손님의 무심한 대답에 상처를 받는다. 이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실패의 이유를 찾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스스로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과정을 바라보며 나 역시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안일한 태도로 살아온 순간들이 떠올랐다. 앞으로는 실패를 마주할 때 원인을 깊이 고민하고, 개선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를 가지기로 다짐했다.</p> <p>[치즈 달과 비스코티]  주인공이 실제로 정신병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상상 속에서 돌과 대화한다고 믿는 건지 계속 궁금해하며 읽었다. 내가 보기에 주인공의 이러한 행동은 불행했던 학창 시절의 방어기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인공이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쿠키는 처음으로 주인공의 이야기를 믿어주고 이해해준 인물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쿠키가 날아가는 장면은, 주인공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쿠키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음을 나타낸다. 그로 인해 스콧의 역할은 끝나게 되어 더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p> <p><b>이현준: [왜가리 클럽]</b></p>		

주인공의 가게가 망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실에서 실패를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현실감 있게 느껴졌다. 실패와 성공의 무게를 같게 바라보는 왜가리처럼,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치즈 달과 비스코티]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법’을 언급하거나 주인공이 속으로 하는 생각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면모가 들어난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처럼,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기에 타인을 대할 때는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현주:** [왜가리 클럽]

앞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다. 왜가리가 먹이를 잡는 모습을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직접적인 말보다 훨씬 와닿았다. 물론 사람의 실패와 왜가리의 실패의 무게는 다르지만 성공과 실패의 무게를 같게 여기는 왜가리의 태도를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치즈 달과 비스코티]

주인공은 돌맹이와 대화를 나누는 망상 증세를 가지고 있다. 중간에 쿠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주인공은 돌맹이가 아닌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처음에는 쿠커에게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쿠커가 자신을 이해하고, 쿠커 또한 비슷한 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인공은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발견하여 기쁨과 반가움을 느꼈을 것이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달을 향해 날아가는 쿠커의 모습을 본 것은, 쿠커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보았다. 이후 주인공과 쿠커는 둘도 없는 절친으로 남게 될 것이다.

**황휘성:** [왜가리 클럽]

주인공 양미의 반찬가게는 결국 폐업했다. 누군가는 반찬가게 하나 망한 것으로 세상이 끝난 듯 좌절하고 망연자실한 양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미에게 그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멍하니 거리를 걸으며 실패의 이유를 되짚어본 끝에, 양미는 터무니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저 ‘반찬’ 가게였기 때문이라고,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고 건강한 맛을 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혹은 돈을 아끼려 전단지를 직접 붙였기 때문이라고. 양미는 스스로 이러한 이유들을 받아들인다.

나는 요식업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자신의 노력으로 결과물을 내고 그것이 금전적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노력만으로 흔히 말하는 성공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기대하기에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그 실망감과 좌절감은 투입한 노력, 시간, 기대치에 비례해 더 크게 다가온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좌절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이다.

이 소설 속에서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왜가리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얻는다. 누구나 좌절을 겪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절감에 파묻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다. 이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치즈 달과 비스코티]

학교 폭력을 당했던 주인공은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는 돌과 대화를 시작한다. 돌은 주인공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그의 말에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대상이다. 친구라고는 돌맹이들뿐이고, 주인공은 어머니 집에 얽혀 살며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 어머니는 주인공에게 집단 정신치료를 권하고 그는 마지못해 치료 모임에 참석한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인공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그들과 다르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주변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런 주인공 앞에 쿠커라는 인물이 다가온다. 쿠커의 등장으로 주인공의 심각한



		<p>내면이 더욱이 드러난다. 주인공은 쿠키의 말들을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치부하지만, 쿠키는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고 공감한다. 주인공은 쿠키의 생각들이 너무나 어이없고 정신병자 같았겠지만, 제삼자인 내 입장에서는 둘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p> <p>여러 사건을 겪으며 쿠키는 주인공을 향한 진정성을 보여준다. 결국 주인공도 조금씩 마음을 열며 감화되고 이야기는 그 과정을 통해 열린 결말로 이어진다. 주인공이 쿠키의 도움으로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느끼고, 망상증을 극복해 건강한 삶을 되찾길 바란다.</p>
--	--	---

4주차	일시	12 월 1 일 23 : 00 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진서 (2051052)	0
		이현준 (2211206)	0
		조현주 (2391057)	0
황휘성 (1991296)		0	
김영아 교수님		0	
진도	도서명:	진도페이지:	p. ~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김영아 교수님, 조현주, 박진서, 황휘성, 이현준]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박진서

[평평한 세계]

불우한 사람들의 대물림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주인공이 새어머니를 역겨워하지만 나중가서 결국 주인공과 새어머니가 같은 처지가 되어 둘이 힘을 합쳐 문을 닫은 것을 보고 약자들끼리 서로 보듬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구아나와 나]

이 책에서는 끈기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이구아나가 멕시코에 헤엄쳐간다고 하고 그 과정을 보면 이구아나는 끈기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주인공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끈기 있는 이구아나를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은 것 같았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변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울타리 안에서만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현주

[평평한 세계]

얼룩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진 않았고 반투명이 된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새어머니가 남자에게 폭행당하고 “이 남자는 새어머니를 다시 찾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로 보았을 때도 그러하다. 결국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

[이구아나와 나]

주인공의 친구인 유진이 수영을 떠나고 필라테스를 하겠다고 하고 주인공에게 수영 말고 다른 걸 찾아봐라 라는 장면을 봤을 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 당했을 때 드는 기분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황휘성

[평평한 세계]

제목을 봤을 때 여성평등에 대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너무 좁은 주제인 것 같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구아나와 나]

이 주제에서 이구아나가 전남친이 전 여자친구에게 받은 거고 주인공도 전남친에게 받은 건데, 연애를 이어달리기라고 표현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생각났다.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버리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만약 나였으면 자연에 방생을 했을 것 같다.

전남친이 이구아나를 이름을 모른다고 이구아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데 주인공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이구아나를 자신으로 투영해서 바라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속의 이구아나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귀엽기도 하고 사람과 말이 통한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이구아나를 데리고 유튜브 숏츠나 방송 이런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현준

[평평한 세계]

얼룩이 주인공과 새어머니에게 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음 속에 새겨진 상처를 뜻하는게 아닐까 싶었다.



		<p>[이구아나와 나]</p> <p>주인공과 이구아나가 처음에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지만 이구아나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주인공에게 말을 걸고 그 이후부터 이구아나는 자신의 꿈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주인공은 활력을 되찾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구아나가 멕시코로 가기 위해 주인공을 떠나게 되는데 내심 이구아나가 주인공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p>
--	--	--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박진서 (2051052)	내가 추천해서 골라진 책인데 읽으면서 재밌었고 읽으면서 생각할만하거나 의문점이 드는 책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이 재밌었다. 다음 학기에도 시간이 되면 하고싶다.
	2	조현주 (2391057)	원래 책을 안 읽어서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든 짬내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책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이어서 좋았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온라인으로라도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3	황휘성 (1991296)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억지로 의견을 나누는게 아니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생각보다 재밌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여유가 된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4	이현준 (2211206)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초반에는 책이 너무 읽기 싫어서 토론 하루 전에 몰아서 책을 읽기도 했는데 읽다보니 책 자체가 나와 취향이 맞았고 작가분의 어휘나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서 책을 읽는동안 즐거웠다.
	5		